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5.09.(화) 제23-052호

◆ [Focus] 6가지 통계로 보는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What's News]

- (부채한도) 바이든 및 양당 의회 수뇌부, 부채한도 관련 회동
- (대중견제) 美 하원, 더 공세적인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법안 추진
- (공급망) 미 서부 항만 물동량 감소... 동부·걸프연안은 증가추세
- (IPEF) IPEF 3차 협상 및 통상장관급 회의 개최 예정

◆ [Top Headlines]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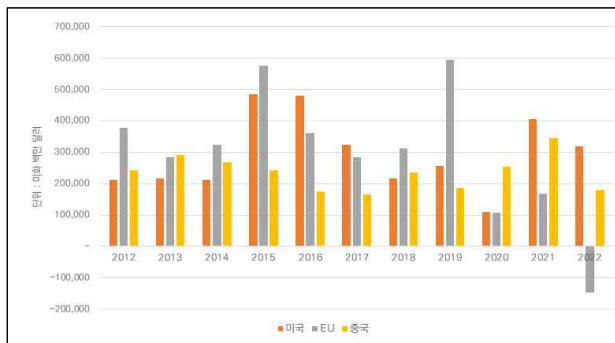
FOCUS

(FDI) 6가지 통계로 보는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1 팬데믹 이후 글로벌 FDI 유치 경쟁에서 미국의 강세 확인

- '10년부터 中 FDI 유치액이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한 이후, 美·中·EU가 최대유치국 경쟁 ⇒ 팬데믹 후('21년부터) 미국이 경쟁 우위
- '22년 글로벌 FDI 유치(1조 2,810억 달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9%로 중국(14.1%)을 압도 * '22년 EU의 FDI 유치는 마이너스 기록(1,477억 달러 유출)

< 美/中/EU FDI 유치 경쟁(2012~2022) >



OECD, FDI in Figures('4월)

< 글로벌 FDI 유치 경쟁 美/中/EU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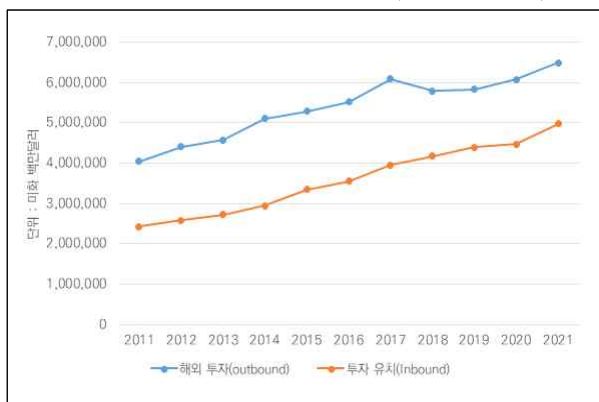


OECD, FDI in Figures(4월)

2 미국, 투자 유치(Inbound) 모멘텀이 해외 투자(Outbound)를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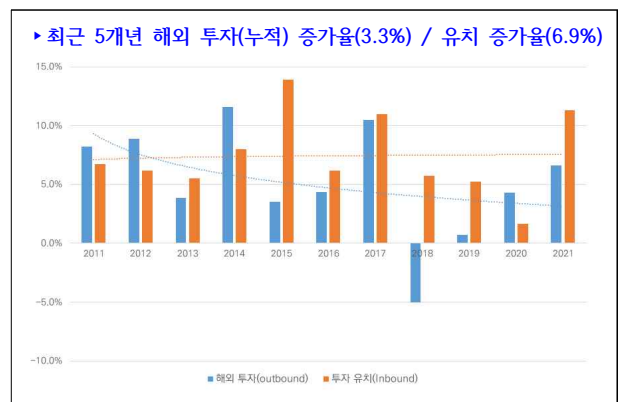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미국의 FDI 유입 및 유출 누적액 모두 꾸준히 증가
 - '21년 기준 미국의 해외 FDI 투자 누적액(stock)은 총 6조 4,890억 달러이며, 유치 누적액은 4조 9,775억 달러에 달함.
-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CAGR) 기준, 누적 투자 유치 성장률이 해외 투자 증가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
 - '16~21년 동안 미국의 해외 투자 누적액은 3.3% 성장에 그쳤던 반면, 투자 유치 누적액은 6.9% 성장을 기록

< 미국 FDI 누적액 추이 (2011~2021) >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3 기준)

< 미국 FDI 누적액 연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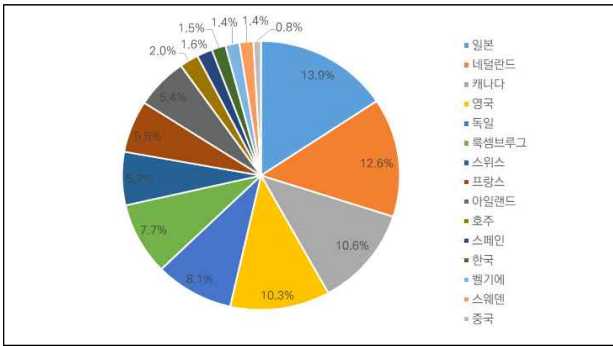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3 기준)

3 일본 등 상위 10개국으로부터 투자가 전체 FDI의 82%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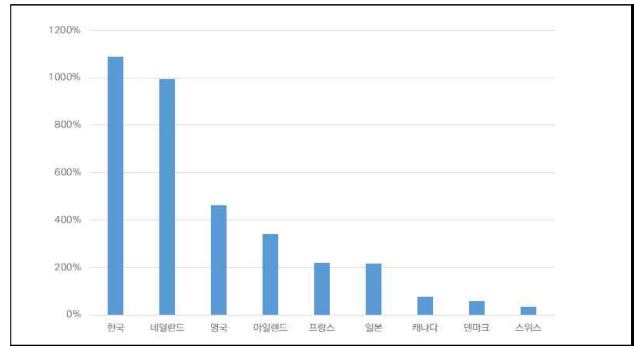
- 일본은 최대 대미 직접투자 국가('21년 누적 기준)로 전체의 13.9% 차지
 - 다음으로 네덜란드(12.6%), 캐나다(10.6%), 영국(10.3%), 독일(8.1%), 룩셈부르크(7.7%), 스위스(5.7%), 프랑스(5.5%) 등 순 * 우리나라 1.5% 비중
- '21년 미국이 유치한 FDI는 3,3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배 이상 급증
 - 팬데믹 동안 위축됐던 대미 FDI 투자가 우리나라,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으로부터 투자 급증으로 가파르게 회복
 - * '21년 우리나라로부터 FDI는 1,089%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대미 FDI 국별 비중(누적 기준) >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3 기준)

< 대미 FDI 국별 성장률(2020~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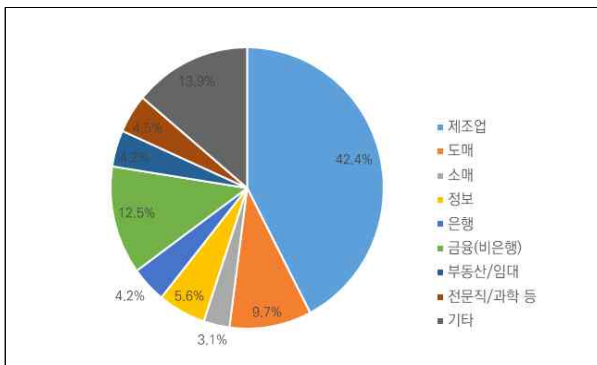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3 기준)

4 대미 FDI 중 제조업이 최대 비중, 그린필드 투자는 전체 1%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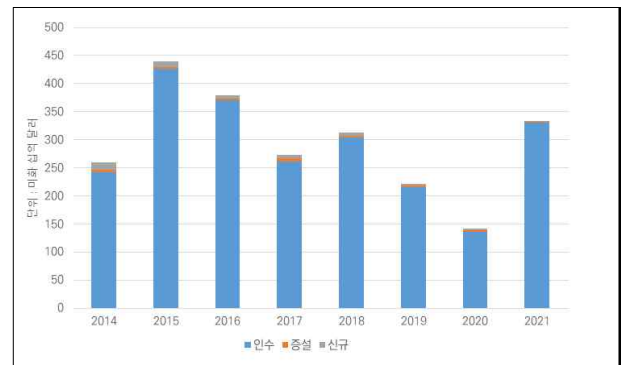
- 누적 대미 FDI 중 42.4%(2조 1,086억 달러)가 제조업중에 집중
 - 그 외 금융(12.5%), 도매(9.7%), 정보(5.6%), 전문직·과학(4.5%) 등 순
 - 제조업 중에서 화학(38.9%), 컴퓨터·전자(10.3%), 운송장비(8.5%) 등 상위
- '21년 미국으로 신규 유입되는 FDI 중 1%(34억 달러)만이 그린필드 형
 - 이중 신규 투자는 약 16억 달러, 증설 투자가 18억 달러 수준

< 2021년 대미 FDI 업종별 비중(누적) >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3 기준)

< 대미 FDI 유형별 추이 (2014~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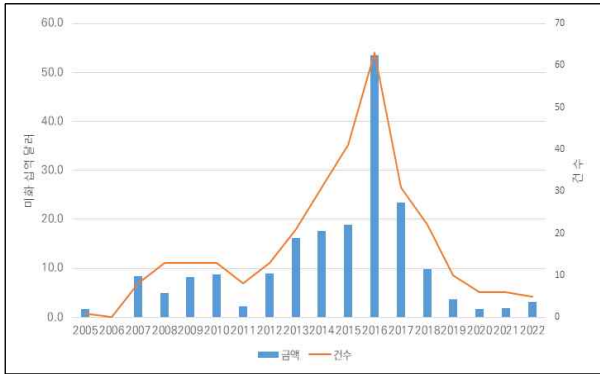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3 기준)

5 2016년 이후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의 대미 투자 급락세 지속

- 전미 기업연구소(AEI)의 조사에 따르면, '05~22년 동안 중국의 대미 투자는 누적 1,9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16년 총 63건 535억 달러 투자로 최고를 기록한 후, 트럼프-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22년 32억 달러(5건)로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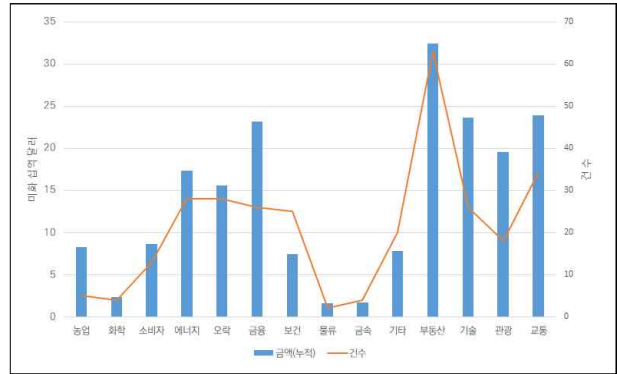
- 업종별로 부동산 부문이 가장 많은 32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금융·교통·기술·관광·에너지 부문도 각각 150억 달러 이상 유치

< 중국 대미 투자 현황 (2005~2022)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 중국 대미 투자 업종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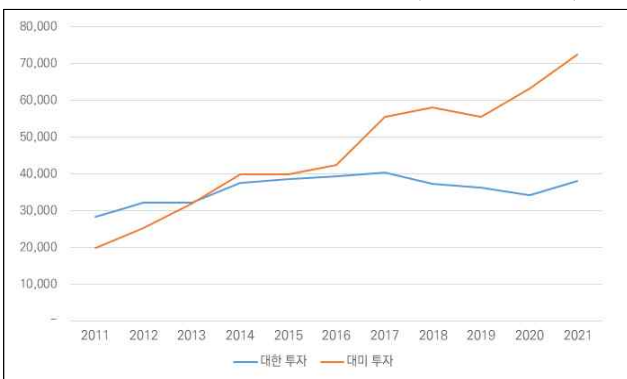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6 팬데믹 이후 최근 2년 우리 對美 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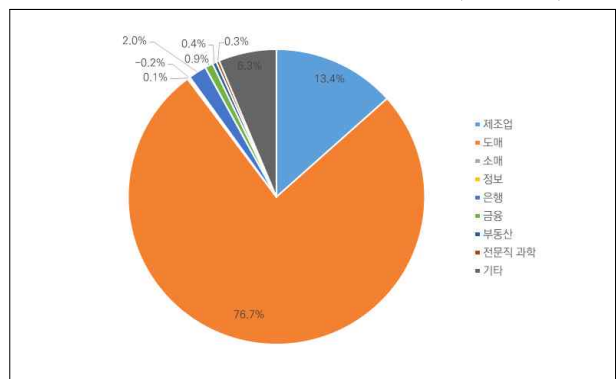
- 미국의 對韓 직접투자(누적)는 '21년 기준 381억 달러로, 우리 對美 직접 투자액(725억 달러)이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對美 직접투자는 연평균 13.8% 증가했던 반면, 미국의 對韓 투자는 3.1%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누적 기준)
- * 최근 '20년과 '21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각각 13.5%, 14.9%)를 보임.

< 한-미 FDI 교류 누적 현황(2011~2021) >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3 기준)

< 우리 대미 FDI 업종별 동향(2021년) >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3 기준)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OECD, 미국 상무부, AEI 등

□ (부채한도) 바이든 및 양당 의회 수뇌부, 부채한도 관련 회동

- (개요) 바이든 대통령, 5월 9일 16시 부채한도 관련 고위급 회동
 - 회동에는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및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참석
 - 그러나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 별다른 진전 없이 회동 종료
 - * 맥카시 하원의장, 회동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
- (배경) 연방정부 부도 기일이 임박함에 따라 회동 추진
 - 하원 공화당은 부채한도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차년도 예산 삭감을 요구, 조건 없는 인상을 요구하는 바이든 및 민주당과 무기한 대치
 - 그러나 엘런 재무장관이 부채한도 미인상 시 이르면 6.1.부터 연방정부가 부도날 수 있다 경고함에 따라 회동 진행
 -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맥코넬 상원의원에게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 맥코넬 상원의원은 이번 협상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하원의장 간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등 관망하는 자세
- (전망) 맥카시 의장, 금요일에 다시 만날 것이라 회동 후 밝혀
 - 맥카시는 약 2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 언급
 - * 맥코넬 상원의원, 미 정부는 부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별로 없다고 밝힘
 - 월스트리트 저널, 협상 기한 연장을 위한 단기 한도 인상에 대해서 양당 모두 거부할 것이라 예상
 - 주식시장은 아직 견고하나, 금 가격이 최근 10% 오르고 파생상품 투자 빈도가 증가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움직임 있어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자료원 | WSJ(5.7, 5.9), NYT(5.9), 폴리τικο(5.3), 백악관(5.8)

□ (대중견제) 美 하원, 더 공세적인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법안 추진

- (개요) 美 하원,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 심사 강화 법안 추진
 - 하원 무역위원 3인 주도로 더 매파적인 성향의 국가핵심역량방어법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NCCDA) 법안 발의
 - * Rosa DeLauro (D-Conn.), Bill Pascrell (D-N.J.) and Brian Fitzpatrick (R-Pa.)
 - 반도체, AI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중국 투자를 검토(Screen)를 위해 소관 위원회를 신규 설립하고 결과에 따라 투자 거부 권한도 부여
- (상세) 심사 대상에 반도체, AI 등, 청정에너지, 제약 및 자동차 분야도 신규 포함
 - 대중 투자심사 대상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대용량 배터리, 제약원료, 자동차 제조업 등이 제시되었으며, 청정에너지, 제약 및 자동차 분야를 더 직접적인 심사 대상(direct targets)으로 신규 포함.
 - 또한 검토위원회 설립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아닌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에 보다 큰 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
- (전망) 확장 가능한 공세적인 접근 방식, 입법은 불확실 전망
 - 폴리티코는 NCCDA는 빠르면 이달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행정명령보다 더 공세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하며 국가 안보가 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투자심사 대상 또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반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금융서비스 의장은 신규 정부 검토위원회 설립에 반대, "새로운 관료 체제를 만들기 보다는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존 도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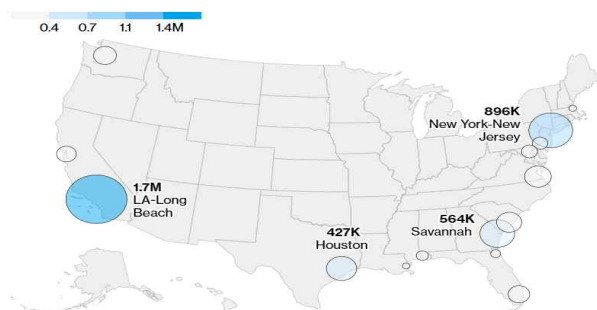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폴리티코(5.9), (2.27), NCCDA 법안초안(링크)

□ [공급망] 미 서부 항만 물동량 감소... 동부·걸프연안은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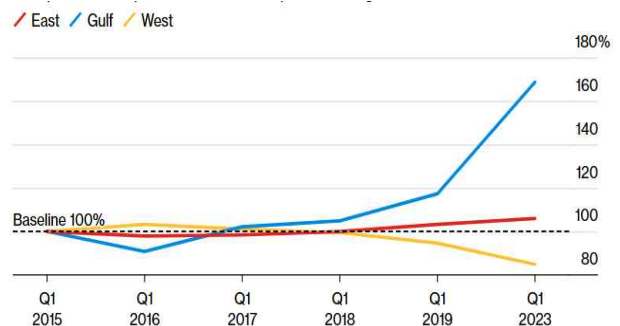
- (개요) 미 서부 항만 물동량 감소와 대조적으로 동부·걸프연안은 점유율 상승
 - 팬데믹으로 인한 항구의 병목현상 완화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의 컨테이너 물량은 10% 감소한 반면, 걸프 연안 화물은 물량 43% 증가세*
 - * 걸프쪽 화물은 대부분 아시아 수입 화물로, 이전에는 서부 항만에 주로 하역
- (상세) 서부 항만의 위험요인 상존에 동부와 걸프 항만은 시설 확충 노력
 - 서해안 항구 노사간 갈등 심화, 중국과의 긴장감 고조에 따른 비용 증대 등 캘리포니아 항구의 위험요인 증가로, 일부 수입업체들은 높은 비용에도 동부 및 걸프연안 항만으로 선적 우회
 - 텍사스, 앨라바마, 조지아*, 뉴욕의 항구들은 창고추가, 철도연결 확장, 주요 다리 건설 등 화물운행 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증설 진행 중
 - * 메이슨 대형 도로 터미널(대륙에서 가장 큰 항만 기반 복합 수송 시설) 개설: 5년간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3일 이내로 달라스/시카고로 운송 가능

<미국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수입 흐름>



[자료] Datamyne, 블룸버그 인용

<동부로 이전되는 미국 화물량 비율>



[자료] Descartes, 블룸버그 인용

- (참고) 미국 소매업자들의 수입 감소로 추가 화물량 감소 예상
 -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미국 항구를 통해 이동하는 선박 컨테이너의 양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8%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인플레이션율과 재고수준이 완화될 때까지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박소현
■ 자료원	블룸버그(5.8), 디트로이트(5.8)

□ (IPEF) IPEF 3차 협상 및 통상장관급 회의 개최 예정

- 미 무역대표부(USTR), IPEF 3차 협상 참가(5.8-15)
 - 싱가포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번 3차 협상은 IPEF의 4대 주요 필라(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를 포괄
 - * 과거 협상 : 1차 호주 브리즈번(12.10~15), 2차 인도네시아 발리(3.13~19)
 - 미국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 중이며 참여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 모색 중
- 한 편 USTR은 2차 발리 회담의 요약본을 공개
 - 공개된 요약본은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기술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의 포괄성(inclusivity) 관련 의견도 제시
 - 단, 관련 세션의 집행 절차 및 체계에 관한 별도 언급은 없어 추후 협의 후 업데이트 될 것으로 전망
- 5월 27일에는 IPEF 통상장관급 회의 및 후속 기자회견 개최 예정
 - 5월 25-26 개최되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통상장관회의 직후 5.27에는 IPEF 통상장관회의 연달아 개최
 - * APEC 의장국 미국은 주요 의제로 디지털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 등 제시
 -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지침을 협의할 예정이며 회의 당일 후속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문 공개 전망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박소현

■ 자료원 | USTR([5.5](#)), 인사이드트레이드([5.8](#)), Politico([5.8](#))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p>Biden, GOP Lawmakers Not Budging as Debt-Ceiling Meeting Convenes (부채 한도 회동이 진행됨에도... 바이든과 공화당 의원 “복지부동”) 이르면 6월 1일 연방정부가 부도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 인상 관련 각자의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어</p>
The Washington Post	<p>Biden meets with congressional leaders in urgent bid to avoid default (정부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바이든, 주요 의원들과 긴급 회동)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뉴욕 연설을 앞두고 하원의장과 대면할 예정. 맥카시, 의회는 다음 주 중에는 합의안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언급</p>
New York Times	<p>Biden and McCarthy Meet for Debt Limit Talks (바이든과 맥카시, 부채 한도 관련 회동 진행)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의장을 위시한 주요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진행. 하지만 양당 중 누구도 이번 회동에서 타결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p>
CNN	<p>How to characterize American economy - from broken to just bizarre (어려웠던 미국 경제, 이제 특이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졌던 미국 경제, 최근 대기업의 정리해고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고용을 보여주는 등 기존에 관측되지 않았던 경제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p>

* 미국 동부시간 5월 9일 16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 · 통상 일정

5.9(화)	뉴욕 연준 발언(New York Fed President Williams speaks)
5.10(수)	4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5.11(목)	4월 생산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5.12(금)	4월 수입물가지수(Import price index)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US23-12	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	2023.04월
US23-11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	2023.03월
US23-10	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3월
US23-09	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	2023.03월
US23-08	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	2023.03월
US23-07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헤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 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 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1 (2023.5.8)		
코인시-10 (2023.4.17)		